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년 11월 1일 (화) 제 843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 설교

##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4:1~4>



정연원 목사 (오사카교회)

(이 설교는 2023년 10월 9일, 동경교회에서 개최된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7회 정기총회 경건회에 하였던 것입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 제57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총대 여러분! 회무를 시작하면서 가지는 경건회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송구스러움도 있습니다.

이 자리는(동경교회) 세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983년 봄, 동경에 도착하여 처음 예배를 드린 교회, 소천하신 오운태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강단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던 일, 동경중앙교회에서 설교 봉사하던 중 재일대한기독교회에 가입을 하겠다 하여, 총회 가입 허락을 받았고, 선교사 가입을 허락받은 총회 장소가 이곳 동경교회입니다. 심지어 부총회장도 하지 않았던 50살 초반이었던 부족한 사람을 2007년에 제47회기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총회장소가 이곳이었으며, 재일대한기독교회100주년행사, 동경교회설립100주년의 기념을 함께 할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동경교회입니다.

저는 총회의 규칙에 따라 시무를 멈추고 은퇴를 할 목사입니다. 지난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총회를 함께 섬겨 주신 선배님, 동료들, 후배들께 진심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참 좋은 교회요, 교단이며 총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교회입니다.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맡겨진 역할을 위해 다양한 많은 교단과도 교류를 해 왔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역사와 신학적인 배경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할 때 마다 많은 지도자들과 교단은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1) 초교파성 (에큐메니칼) 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교파를 뛰어 넘어 시작된 교회이고, 오늘날도 이 정신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재일동포, 일본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총회에서 교역자가 된 분, 각 교단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아 함께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내가 가진 교파나 교단을 심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가 가진 헌법과 신학적 배경을 공유하고 나누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2) 소수성 (마이너리티) 라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일본사회와 교회 내에서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선교활동과 교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다양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교인들의 구성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본, 한국사람으로 나누어졌던 교회 내에서 재일동포와 신1세, 이런 단어를 사용하던 때도 있었습

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구성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 총회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으려고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들의 기도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지도자의 부재 현상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교회 이탈과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이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상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내의 분열을 없애고 교회에 평안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역자는 올바르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이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단어 하나 하나가 주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에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은 기독교인들이 가질 가장 기본적인 덕성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잘못을 뉘우칠 때 서로 용납하고 받아 드리는 겸허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십니다. 누구의 의지에 의해 하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장, 임원들, 실무자인 총간사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마음을 가질 때에 총회와 교회는 올바르게 나아가갈 것입니다. 총대들이 기도 가운데 선출하여 책임을 맡긴 임원들과 실무자의 역량을 믿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회원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40년간 총회를 섬기면서 제 가슴에 남는 것은,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참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총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경험하는 것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받고 보이지 않는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어온 115년의 역사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비록 작은 교단이고 총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되어야 할 우리 총대들 가슴에 분열의 움직임이 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57회총회기

# 제2회 상임위원회 개최 제58회 정기총회 일정등을 결정

제57회 총회기 제2회 상임위원회가 2024년9월15일 KCC (大阪) 에서 개최되어 상임위원26명 중 19명, 특별위원1명이 출석하여 각종 보고 및 안건 심의가 있었다. 심의하여 결정된 주요 현의안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신학교·西新井교회 주차장 입구 공사의 건을 승인.
- (2) 중부지방회 규칙 변경의 건을 승인.
- (3) 사회위원회 위원 보충의 건을 승인.
- (4) 浪速(나니와)교회 총회 명의로 토지구입 허락 청원의 건을 승인.
- (5) 총회 규칙 변경의 건(목사/장로 시무연장)은, 제58회 정기총회까지 초안작성을 헌법위원회에 위탁하기로 결정.
- (6) 제57회 총회기 후반기 예산안을 승인.
- (7) 제58회 정기총회 일정/장소 결정의 건은, 일정은 2025년10월12일(주일)~14일(화)로, 장소는 서남지방회에서 조정하도록 확인하다.
- (8) 차기 상임위원회는 2025년4월22일(火)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다.



국립교회학교

# 전국 목사·장로 연수회 개최 교회학교의 실천을 중심으로 신앙을 계승

10월 14일(월) 오후 1시부터 교육위원회 주최 목사-장로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40여 명이 참석했다. 교회학교의 실천을 중심으로 신앙의 계승을 주제로 세 분이 현실감 넘치는 발제를 해주었다. 구자우목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이는 교회학교에서 '이중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구 목사는 사전에 10개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성을 파악했다. 발제는 '이중언어'가 주제이긴 했으나, 교회에 모이는 어린이-청소년들, 나아가 교회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임을 드러냈다. 이중재목사는 지역사회에 열린 교회학교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학교 운영을 통해 교회학교의 실천 자체가 전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라이유키 목사는 전도사 취임 이후 관여해온 교회학교 실천의 윤곽을 그린 후, 현재 교회학교가 네팔인 기독교 공동체의 거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고하고, 향후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시사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세 강사의 발제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세 확장에 고민하는 총회 산하 각 교회에 교세 증가와는 다른, 총회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기초하여, 총회 산하 각 교회에 요구되는 실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 주었다.



구자우 목사



이중재 목사



아라이유키 목사

온라인 수련회 운영상 사무국의 준비 부족으로 그룹 토론과 동시 통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사, 통역사, 그리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한번 대면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에 큰 용기를 얻었다.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내년도 수련회의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

(보고:김신야 목사)

사이어연회

#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릴레이집회

## -영주자격과 우리들의 영주권-

지난 9월29일,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릴레이집회]의 일환으로 [영주자격과 우리들의 영주권]이라는 주제의 KCCJ사회위원회/KCC/서남KCC/RAIK주최의 온라인집회가, 재일코리아안변호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민 변호사를 강사로 해서, 54명이 참가하여 온라인으로 열렸다.



KCCJ총회장 양영우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한 집회는 5월 2일 발표된 [영주자격취소법 講師の金哲敏弁護士]안에 반대하는 KCCJ긴급성명'이 낭독된 후, 김철민 변호사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김변호사는 이번 법안이 취업자격확대에 따른 영주외국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입관(출입국재류관리국)의 방침이 외국인은 어디까지나 재류 관리의 대상이지 권리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제재가 수반되는 차별적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주권자의 체류권리를 짓밟는 결과가 낳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도 일본정부의 외국인 거주자 취업방식과 혈통주의 호적제도의 문제점이 논의되었으며, 총간사 정수환목사도 폐회기도에서 이 법안의 문제가 해결되어 외국인도 일본인도 살기 좋은 일본이 되기를 기원하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부각되는 집회였다.

(보고 사회위원회 서기 손신일 목사)

레이스교파그

# 합동심포지움 개최 일본기독교단 시코쿠 교구와 함께

9월 23일 KCCJ 新居浜그레이크교회에서 교단 四国교구와의 제40회 합동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함께 살아가면서~걸러풀한 공동체의 교회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사: 사토노부유키(佐藤信行)씨(RAIK전 소장)가 <이민사회가 된 일본>, <영주 취소 제도에서 본 일본의 외국인 정책>,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처>,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지향하는가?> <재일동포, 이민자, 난민과의 만남에서 - 나의 프로필>이라는 각 항목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가 제시되어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 난민 문제에서 바라본 인권의식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해 볼 수 있었다.

올해는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약 체결 40주년을 맞이했다. 이 합동심포지움은 1984년 10월 23일 제1회 개최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한 차례 개최가 무산된 바 있지만, 양 교단의 선교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합동 심포지움을 통해 四国교구와 KCCJ에서 유일하게 四国에 있는 니이하마(新居浜)그레이크교회가 함께 재일 한국·조선인의 인권문제에 대해 배우는 귀한 자리가 되어 양 교단의 선교협약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가자는 대면 48명, 온라인 16명이었다.

(보고 :정수환 목사)



서부여성회

# 5년만에 수양회를 개최 편견과 선입견 깨닫는 시간이 되어

서부지방교회여성 연합회는 9월 23일~ 24일 고베 하버랜드 온천 만요클럽에서 [앞으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수양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 5년만의 1박 수양회이며 29명(6교회)이 참가했다.

개회 예배는 윤풍자 부회장의 사회로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은 정시온목사 (무코가와교회 부목사)로부터 "메타노이아" (마가1:15)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전국 여성회 총무인 이시바시마리에 전도사를 강사로 맞이해 (의문기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의 강의를 들었다. NHK 아침의 연속 TV소설 '호랑이에게 날개'를 참고로 하면서 성별 역할 의식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와 그룹 워크 시간을 통해 젠더 갭 지수가 낮은 한국이나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진 편견과 선입견 무의식의 고정관념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자신의 당연함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당연함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폐회 예배는 양율자 회장의 사회로 손신일목사 (니시노미야 교회)로부터 [공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골로새서 3:12-17)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보고: 최미혜자)



중부지방교회

# 협약 체결 40주년 기념집회 지방회와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가개최

2024년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부터 나고야교회에서 중부지방회와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와의 선교협약 체결 4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다. 개회예배는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중부지방회 부회장 이대중장로가 기도, 나고야교회 합동 성가대의 찬양이 있는 후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 총회의장인 가토미키오 (加藤幹夫)목사가 '우리들의 교류' (요한일서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예배에서 드러진 헌금은 일본기독교단 와지마(輪島) 교회로 보내자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다. 가토미키오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김명근목사가 사회를 담당하여 기도함으로 다과회를 가졌다. 먼저 나카가와(中川) 포도나무교회 윤성규목사가 중부교구의 참석자를 소개하였고, 도요다 메구미 전도소 이진용 목사가 중부지방회의 참석자를 소개하며 한국의 떡과 식혜 등을 함께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기독교단 아쓰타(熱田)교회의 고바야시히카루(小林光)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집회를 마쳤다. 이번 기념집회는 9월에 있었던 KCCJ와 UCCJ의 기념집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함께 기도로 준비해 온 뜻깊은 집회가 되었다. (보고 :김명근 목사)



서부지방교회

# 제1회 권사회를 개최 20명의 권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

제1회 서부지방교회권사회를 10월 5일(토) 무코가와교회에서 개최했다. 20명 (5교회)의 권사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심정아 명예권사(고베교회)와 오야마교교 명예권사 (가와니시교회)의 간증을 듣고 나서 서부지방회에 있는 13교회 2전도소 각각의 과제를 위해서 마음을 합하여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계속 기도하는 자이기를 소망한다. (보고: 최미혜자)



관동여성회

# "찬미와 말씀의 밤" 개최 13곳의 교회가 참가하여 찬미를 경연

관동지방 교회여성연합회 "찬미와 말씀의 밤"이 9월 22일 (일), 동경교회에서 개최되었다.

1부의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김용소목사(니시아라이)가 "찬미가 넘치는 인생" (시편150: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김용소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의 찬미의 밤에서는 13곳의 교회가 참가했다. 참가인수는 260명 정도였다.

신종 코로나를 경험한 이래 13곳의 교회가 참가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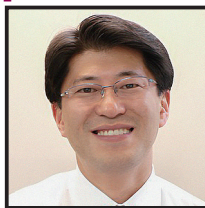
가나가와 한국종합교육원 원장님인신 배영은권사의 3곡의 특별 찬미가 있어 감동의 시간이었다.

올해의 우수상은 3년 연속 요코하마교회, 인기상은 동경중앙교회, 노력상은 쓰쿠바 동경교회가 수상했다. (보고:이혜숙)



동경중앙교회

# 안재홍장로가 소천 교회당 건축과 목사 청빙에 진력



2024년 9월 29일, 동경중앙교회 안재홍장로가 향년 54세로 소천하여 동경중앙교회 김신우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故·안재홍장로는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나 2001년 일본에 와서 동경중앙교회의 집사 및 안수집사로 섬겼으며 2020년에 장로장립을 받았다.

고 안재홍장로는 동경중앙교회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또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일 등, 교회의 발전과 평안을 위해 교회를 섬겨왔다.

# 가을의 기도

김현승 (金顯承)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落葉)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謙虛)한 모국어(母國語)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肥沃)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을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百合)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협의회 제15차 미국 LA대회 참가 안내

일시: 2025년2월18일(화) 19:00~21일(금) 09:00  
<임원회는 18(Tue) 16:00>

장소(Venue): 토렌스제일장로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PCUSA  
1880-1900 Crenshaw Blvd.Torraece,  
CA 90501

http://1church.com

- 주제: 디아스포라교회의 미래”
  - ◆주제강사: 옥성득교수 (UCLA)
  - 참가비: 1인당 US\$ 200 (3박4일, 2인1실)  
\*1인 1실 사용은 US\$ 350
  - 주요 일정: 2월18일(화) LA 도착  
18:00 저녁식사  
19:00 개회예배, 소개, 교단장 인사  
20:00 주제 강연 (옥성득교수, UCLA)
  - 19일(수) 아침 기도회  
각 교단 보고  
발제: 각 지역별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 한국 등)  
분과토의,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수요예배와 교류
  - 20일(목) 아침 기도회  
지역 Research  
LA지역 교회들과의 교류, 정기총회 폐회예배(성찬식, 선언문 채택)
  - 21일(금) 조식후 해산
- ※참가 신청 마감: 2024년12월31일 (담당: 김병호목사)

### <정정과 사과>

복음신문 2024년10월호 일본어판 1면, 설교자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바른 이름은 田一光牧師 (水戸教会) 입니다.  
그리고 복음신문 2024년10월호 4면의 「한대룡 명예장로 소천」 기사 중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 와서」는 틀렸습니다. 바르게는 「일본에서 태어나」 였습니다. 정정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 公 告

利害關係者および信者各位

本法人は、下記の不動産を「在日大韓基督教会浪速教会」の伝道の用に供するため、当法人の名義とすることを公告します。

1、土地

地番: 大阪市西成区北津守3丁目69番1・69番3  
地積: 456.82㎡ (69番1)  
164.94㎡ (69番3) 621.76㎡ (合計面積)

2、建物

地番: 大阪市西成区北津守3丁目70番1  
面積: 130.80㎡ (1階) 90.41㎡ (2階)  
221.21㎡ (延べ床)

2024年10月3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代表役員 梁榮友  
書記 李明忠

## 고쿠라교회 교역자 청빙 안내

재일대한기독교회 고쿠라교회에서 담임교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 격: KCCJ 그리고 선교협약 소속교역자
- 제출서류: 자기소개서
- 마 감: 2024년 11월30일
- 제출처: ap023tyu0221@outlook.jp
- 문의처: 093-521-7271 (담임목사)

## 고베동부교회 부교역자 청빙

고베동부교회에서는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 부교역자1명: 신학생 혹은 전도사, 목사)
- 자격: 교회학교 교사 경험자(일본어와 반주가 가능한분 우선)
- 사례: 총회가 정한 기준
- 제출 서류: 이력서
- 기간: 2025년 3월15일(土) 필착
- 제출: 우편 혹은 E-mail(제출전에 교회에 꼭 연락 주세요)  
〒651-0077 神戸市中央区日暮通6-4-8  
電話078-241-5253 携帯: 090-1151-4196  
hzc24429@yahoo.co.jp

## 선교위원회 주최 온라인 이단사이비대책 세미나 “내가 이단에? 왜곡된 지배는 바로 곁에 있다: 이단문제와 그 대책”

-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19:30 ~ 21:00
  - 장 소: 온라인 세미나(ZOOM) 언어는 일본어입니다!
  - 강 사: 사이트 아츠시 목사(일본기독교단 미야기노교회)
  - 프로그램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 대 상: 교역자와 신도
  - 참가신청 마감: 11월13일(수)까지
  - 신 청: 서기 채은숙 목사(ces0901@gmail.com)
  - 문 의: 위원장 조영철 목사(080-5318-9058)
- ※참가신청은 각 교회에서 정리하여 참가자의 이메일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 자료와 ZOOM 링크는 신청자에게 직접 메일로 보내드립니다.